

고려아연, 겨울철 이웃에 따뜻한 손길

고려아연이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800만원을 기부하고 임직원들과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서울 노원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에서 '2026 추운 겨울 건강하게 극복하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려아연



토요타코리아, 반려견과 함께 고객 소통 강화

토요타코리아가 반려견을 매개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와 브랜드 경험 확대에 나섰다. 전국 딜러 전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반려견 문화 캠페인을 전국 단위 고객 커뮤니티 행사로 확장하며 기존 고객과의 유대감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토요타코리아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에서 '2026 토요타 바른독(DOG)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요타코리아



유진그룹, 22년째 이어온 수험생 응원 '훈훈'

유진그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자녀를 둔 임직원들에게 응원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16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수험생 응원은 지난 2005년 계열사인 유진기업에서 시작돼 올해로 22년째를 맞았다. 유진기업은 매년 수험생 자녀를 둔 임직원들에게 응원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를 이어오고 있다. /유진그룹



삼천당제약, 소아당뇨 환자에 장학금 5000만원

삼천당제약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제16회 당뇨병 학술제'에서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장기간 꾸준한 혈당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학업, 일상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삼천당제약

인 사 ◆**경찰청** ◇ 치안정감 전보 ▲ 이재영 경상남도경찰청장 ▲ 이종원 경찰청(전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

◆**더투데이** ◇ 신임 ▲ 편집총괄 전무 한민

부 음 ▲서만수씨 별세, 서영태(경남 창원시 공보팀장)씨 부친상 = 16일,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55-214-1900

▲진형구(전 대전고검장)씨 별세, 한동훈(국회의원)씨 장인상 = 1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조문은 16일 오후 2시부터 가능),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CJ문화재단, 창작자 꿈 키운 20년… K-컬처 성장 밑거름

20년간 문화예술 분야 917억 후원
인디 뮤지션 85팀·영화인 215명 육성
뮤지컬 77편 발굴해 25편 상업화

CJ문화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창작자 지원 성과와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사례를 공유했다.

CJ문화재단은 지난 14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한국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재단의 사회공헌 철학과 주요 창작자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K-Culture와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다. 2001년 출범한 한국예술경영학회는 정기 학술행사와 문화예술 정책 관련 논의를 이어온 학술단체다.

기조발표에 나선 민희경 CJ사회공헌추진단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인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를 바탕으로 한 창작자 발굴·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대중문화의 다양성 추구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그룹 인프라를 활용한 성장 지원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민희경 CJ사회공헌추진단장이 _2026 하반기 (사)한국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_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CJ문화재단

CJ문화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20년간 누적 917억원을 후원했다. 인디 뮤지션 지원사업 '튠업'을 통해 멜로망스, 카더가든, 한로로 등 85팀을 배출했으며, 영화 창작자 지원사업 '스토리업'에서는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 215명을 지원했다. 뮤지컬 창작자 지원사업 '스테이지업'은 77편의 작품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25편이 상업 공연으로 이어졌다.

스토리업 출신으로는 첫 상업 장편영화 '살목지'로 324만 관객을 동원한 이상민 감독과 '불한당', '굿뉴스'를 연출한 변성현 감독 등이 있다. 스테이지업 지원작 중에서는 한국뮤지컬어워즈 3관왕에 오른 '라흐헤스트'와 작품상을 받은 '홍련' 등이 공연 성과를 거뒀다.

민 단장은 "CJ문화재단은 인디 뮤지션, 영화 창작자, 뮤지컬 창작자 등 잠재력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의 창작자를 지원하며 문화예술 다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생태계 설계자 역할에 주력해 왔다"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창작자를 문화산업 현장으로 잇는 성장 사다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한진, 유기견 돌봄에 따뜻한 손길

임직원 15명, 유기견 돌봄 봉사
사업 매출 일부 기부로 나눔 실천

한진이 유기견 돌봄 봉사활동을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한진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Love Connect(러브 커넥트) 캠페인' 일환으로 동물구조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논산센터를 방문해 유기견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2022년부터 지속해서 후원 관계를 이어오며 연속성을 다져온 비글구조네트워크와 함께했다. 충남 논산시 벌곡면에 위치한 논산센터에서 진행된 봉사에는 한진 임직원 15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센터 내 유기견 및 실험구조견들의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기 위한 산책 프로그램을 비롯해 영양 간식 급여와 교감 활동, 견사 내·외부 정비 및 환경 미화 활동 등을 펼치며 동물복지 향상과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한진은 봉사활동과 더불어 사업 매출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조성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전달하며 구조견들의 치료와 보호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더했다. 사업 수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동물복지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ESG 활동 모델을 실천한다는 취지다.

한진 관계자는 "2022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비글구조네트워크와 올해도 뜻깊은 돌봄 활동을 이어가며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위기임산부, 독서 소외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는 'Love Connect 캠페인'을 지속 확대해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앤컴퍼니, 가족과 소통·화합의 장

임직원·가족 750여명 참여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임직원 가족과 회사의 소통을 확대하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 7일과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와 대전 유성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에서 '2026 한국앤컴퍼니그룹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과 가족 180가족, 7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One Goal, One Team! 잠든 Technoplex·Technodome을 깨워라!'를 주제로 가족들이 회사 곳곳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발견과 도전, 소통, 창작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마련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회사의 공간과 문화를 접하도록 했다.

판교 테크노플렉스에서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브랜드 전시를 비롯해 가족 협동 게임, 페이스 페인팅, 가족사진 촬영 등을 운영했다. 썬캐처와 그림 키링, 캘리그래피 소원 액자 만들기 등 창작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대전 한국테크노돔에서는 연구소 특성을 살린 시험실 투어를 통해 가족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연구 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양 사업장에서는 5개 핵심 미션을 완료한 가족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깜짝 선물을 증정하는 등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했다. 가족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성운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2026 패밀리데이'에서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교촌,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응원

장학생 36명 초청 교류 행사
6년간 281명에 8.15억 후원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 본부에서 '제6회 자립준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의 꿈' 장학생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학생 36명과 교촌에프앤비, 초록우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2027년 달력에 새해 다짐과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공유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개월간 진행된 멘토링 프로그램 '교촌으로 잇닿다'에 멘토로 참여한 장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을 전달했다. 장학금과 자립 지원사업을 통해 이룬 학업 및 자기계발 성과도 공유했다.

행사 이후에는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교촌의 플래그십 스토어 '교촌필방'을 방문해 브랜드 공간과 메뉴를 체험하며 네트워킹을 이어갔다.

교촌의 자립준비 지원사업은 2021년 초록우산과 함께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억6000만원을 후원해 장학생 50명에게 총 1억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6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장학생 281명, 총 8억1500만원이다.

장학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마음채움 프로젝트'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교촌의 바르고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 나눔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신원선 기자

소진공,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첫 인증에 교육부 장관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워크숍'에서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은 능력중심의 인재 채용과 인적자원개발·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인증기관 가운데 인적자원개발 역량이 뛰어난 최우수기관 4곳과 정부시책을 적극 반영한 우수기관 1곳을 별도로 선정해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올해 공공부문 인증기관은 총 40곳으로, 이 중 소진공을 포함한 신규 인증기관은 11곳이다. 소진공은 최초 인증과 동시에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신규 인증기관 중 유일한 준정부기관이다.

소진공은 이번 심사에서 지역인재, 고졸,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 전 부문에서 정부 권고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 점을 인정받았다.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24년 74.6%, 2025년 65.5%로 2년 연속 정부 권고기준(35%)을 크게 웃돌았다. 소진공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춘천·진주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운영해왔다. 참여 대학도 2024년 5개교(12회)에서 2025년 10개교(15회)로 확대했다. /김승호 기자